

고다영 (여, 18세)

03.08

성매매업 종사자

“그럼에도 삶을 포기하고 싶진 않다.”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께 울면서 고백했다.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가게 vip 손님이 새로운 친구를 데려왔다.
술에 잔뜩 취한 담임선생님이었다.

열여섯에 다영이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 마을 주민들은 하나 같이 그녀를 구출하려 애썼다. 하지만 몇 번 손을 내밀어도 반응이 없자 마을 주민들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갔다. 다영은 담임 선생님 사건 이후로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기필코 누구 앞에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을 거라고. 오늘도 열리려고 흔들리는 마음을, 차라리 확 열려버렸으면 하는 마음의 문을 애써 닫는다. 사람들 눈에 다영은 가시가 덮힌 고슴도치 같아보인다.

저기 저 앞에 아내와 유아차를 끌고 지나가는 남편, 어제 콘돔을 쓰기 싫다며 뺨을 때렸던 사람이다. 옆 고시원에서 경찰이 되겠다고 준비하는 20대 청년은 다영에게 매번 만원만 깎아 달라 투정을 부린다. 이 동네 여자들은, 아니 모든 여자들은 아마도 다영을 싫어한다. 더럽다며 경멸한다.

다영은 자살이라는 말을 모를 때부터 죽음을 원했고, 자해라는 말을 모를 때부터 손목을 그었다. 엄마는 불륜을 저질렀고, 아빠는 그런 엄마를 때렸으며, 어린 다영은 일곱 살 때부터 엄마와 아빠 중 누가 더 나쁜 지에 대한 답을 고민했다. 어느 정도 자아가 생성 되었을 때, 다영은 집을 나왔다.

사실 다영은 누구보다도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 부모님 말 잘 듣는 순한 아이였다. 중학교 때 가족의 품을 벗어나 또 다른 어른을 만났을 때도 변함없이 수용 적이며 순수했다. 자신을 도와준다는 어른들의 말을 믿었고, 어른들의 진실 된 미소와 가식적인 웃음을 구분하지 못했다.

다영은 습관처럼 담배를 피고 한 손으로는 팩우유를 마시곤 한다. 어른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탈인 흡연과 아기가 되어야만 먹을 수 있는 우유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른을 흉내 내는 아기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곤 한다.

다영은 일주일에 세번 씩 마을을 방문하는 청년, 진푸름 (남.28세)이 야채 꾸러미를 배달하러 오는 날이면, 입구 계단에 앉아 푸름이가 보란 듯이 담배를 핀다. 푸름에게 한 번씩 잔소리를 들으면서 묘한 감정을 느낀다.

진푸름 (남, 28세)

07.18

농부

“사람들은 모두 나를 착한 청년이라 부르죠”

인생은 결코 혼자 사는 게 아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자연의 바람, 싱그러운 햇살, 따뜻한 대지의 온도.

삶은 오늘도 눈부시게 아름답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어린 푸름이에게 언제나 말했다. 우리는 잠시 자연을 빌려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수 많은 생명체 중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푸름은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

푸름은 부모님에게 물려 받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흙이 잔뜩 묻은 트럭을 타고 일주일에 두 번씩 마을 주민들에게 농산물 꾸러미를 배달한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푸름을 ‘착한 청년’이라고 부르며 좋아한다. 환한 미소에 어른들에게 씩씩한 모습으로 어딜 가든 사랑받는다.

푸름이가 어릴적에 엄마는 발달 장애가 있던 여동생과 함께 농약을 먹고 자살했다. 푸름의 여동생이었던 친구름 (여. 9세)이 장애인 특수 학교에 다닐 당시 학교 교무부장으로 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고, 푸름의 엄마는 이 사실을 알고 교무부장의 처벌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교무부장의 아버지가 법무부 차장이었던 탓에 모든 사건이 묻혀버렸다.

어릴 때 여동생을 잃었던 아픈 기억 때문인지 유일하게 다영을 편견 없이 대한다. 마을에 농산물 꾸러미를 배달하며 다영에게도 농산물 꾸러미 박스를 꼭 전해준다. 푸름은 항상 인스턴트를 먹는 다영이 신경 쓰인다면 농산물을 건네주지만, 막상 박스를 열어보면 신선한 농산물과 함께 달달한 과자와 젤리들이 들어있다.

최성진 (남, 48세)

12.28

건설업자

건설업자는 건설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공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감독을 맡는다.
성진은 건설 프로젝트로 인해 주로 미션과 다른 지역에서 생활한다.

“원하는 건 뭐든 이루고 말 것이다.”

늘 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들은 없었다.

딱 하나, 아이빠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한 이유?

그건 수컷의 본능적인 판단이었다.

성진은 놀랍도록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다. 정말 모든 것이 평균, 중간이었지만 성진은 자신의 집안이 금수저라고 굳게 믿는다. 아마도 어려서부터 성진의 부모님이 성진이 원하는 건 뭐든 다 들어준 탓일 것이다.

성진의 특기는 새로운 모임에 가서 우두머리를 찾는 일이다. 성진은 기여코 그 우두머리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답을 이끌어내곤 한다. 예를 들면 투자자로부터 성진의 회사에 큰 금액을 투자를 하겠다는, 뭐 그런 비즈니스적인 답변말이다. 그렇지만 성진의 회사는 뼈대부터 모든 구조가 불안하고 이상하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있다. 아마도 피사의 사탑 마냥 기울어져 있을 게 뻔하다.

30대 시절 성진의 유일한 낙은 강남의 M술집에서 젊은 여자들과 노는 것이었다. 그때 지금의 아내인 미선을 만났다. 성진이 미선에게서 매력을 느낀 포인트는 사실 미선의 고양이 사연이 아니라 ‘첫 출근’이라는 단어 때문이었다. 성진은 미선의 아무것도 알지 못 한다는 순수한 눈망울이 마음에 들었다. 자신이 가져본 적 없는 순수함을 욕망했다.

성진이 왜 그토록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지는 본인도 모른다. 사실 성진에게 아이는 예쁜 새끼 강아지 같은 존재일지도 모르겠다. 자신이 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겨줄 귀여운 생명체, 과거의 미선이 그런 존재였을 것이다. 그는 순수한 눈망울을 가진 또 다른 새 생명을 찾고 싶은 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다영이 만나는 어른들

배동길 (남, 58세)

05.18

낙시꾼

“시대가 변한 적이 없지. 누구에게도 희망이 없는 세상인거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본다.

왜 잡히지도 않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냐고.

그런데 당신은 알까?

이곳에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

물고기 잡고 싶어서 오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나는 그저 저기 검은 강에도 생명이 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할 뿐이다.

어린시절? 기억이 날리가 있나. 동길이 기억하는 최초의 기억은 몽둥이였을거다. 그 힘든 시절에 없는 돈 굶어모아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대학에 진학했으나, 대학 시절 내내 학생 운동을 하느라 시간과 돈, 에너지를 모두 탕진해버렸다. 5.18 당시 광주에 살았던 인물이다.

동길은 학생 운동하며 가졌던 마음 속 뜨거운 불꽃이 영원할 줄 알았다. 젊음과 패기만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불꽃은 점점 작아져만 갔다. 무엇도 해내지 못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하지만 20대 중반에 아내 옥선영 (여. 26세)을 만나 아이를 키우며 또 다시 마음에 불꽃이 피어 올랐다. 내가 세상을 구하진 못 했어도, 이 소중한 생명은 꼭 지키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40대 후반까지 광주 단추 제작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친척이 대기업 하청 업체를 소개 시켜줘 경기도 화성에 있는 공장에 취업했다. 그로 인해 동길의 가족은 경기도 안산으로 이사했다.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 아들 배찬영 (남. 19세)을 잃게된다.

동길은 또 다시 세상을 향해 소리쳤다. 학생 운동을 하며 소리쳤던 만큼 큰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눈물로 가득 찬 가슴을 비통한 듯 툭툭 치며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다. 그럼에도 울지 않았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내를 지켜야만 했다.

하지만 살아가는 것에 무력함을 느끼고, 말 수가 적어지기 시작하더니 입을 꼭 닫게 되었다. 그렇게 아내와 이혼 후 홀로 이 마을로 들어왔다.

동길은 묵묵하게 매일 낚시 장비를 챙겨 저수지로 향한다. 사람들은 동길 보고 잡히지도 않는 물고기를 위해 왜 시간을 낭비하나 하지만, 동길은 때때로 잡힌 물고기들 마저 다시 풀어주곤 한다.

김록희 (여, 48세)

08.20

마트 운영

“누군가는 네게 조증이라며 비웃더군요,
어떻게 이 미친 세상에서 춤추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죠. 조증, 조현병, 우울증, 알콜중독.
그런데 그들은 나의 병보다도 나의 죽음을 막고 싶어하지 않나요?
난 정신병자, 미친 여자라고 불려도 상관없어요.
나는 하루 종일 취해있을거고, 누구도 나를 깨울 수 없어요.

록희는 뭐든 중간은 하는 아이였다. 집안도 중간, 성적도 중간, 키와 몸무게마저도 평균인 이 여자의 이름은 김록희. 그녀는 평범한 게 끔찍하게 싫은 평범한 사람이다. 본인이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곤 한다.

사실 록희는 ‘평범’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평범하지 않은 아픔을 지냈다. 록희는 예쁘다는 이유로 학창 시절 내내 왕따를 당했으며, 19살이 되던 해에는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록희는 ‘뮤지컬 배우’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공부를 못 하는 학생들만 간다는 예술대학교에 진학해 연극과 뮤지컬을 공부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했으며 무대에서 공연할 때 큰 희열을 느꼈다.

하지만 졸업 후 들어간 극단에서 심한 따돌림과 업계 유명 선배에게 당한 성추행 이슈로 극단을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 록희는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닌, 내가 연극을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었다고 생각했다.

이후 록희는 연극 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해 다양한 갈등 상황들을 연기하며 연기 일을 이어갔지만, 연기 도중 화를 못 참은 학생에게 폭력을 당하며 목에 상처를 얻고 완전히 연기를 그만두게 되었다.

록희는 연기를 하며 자신과 다른 인물로 살아가는 것을 즐겼다. 현재는 즐기는 것을 넘어서 소위 미친년 행세를 하며 살고있다. 록희는 수시로 소주를 빨대로 마시며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매일을 훔추며 일하고 살아가고 있다.